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든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

국내 35개 도시 결의 다짐 전주시, '엄마의 밥상' 등 추진책 소개 관심 이끌어내

전주시가 모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시는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1회 컨퍼런스'에 참석해 모든 아동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및 시민권의 실질적 확대방안'을 주제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도시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아동친화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기조강연과 전문가 토론,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전주 등 아동친화도시를 추진중인 국내 35개 도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모든 아동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일본의 아동친화도시인 카와사키시의 코도모우메가키(어린이 꿈의 공원) 총괄책임자인 니시노 히로유키 씨가 기조강연을 통해 일본의 특색 있는 아동친화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주시는 13일과 14일 2일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아레나광장에서 진행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박람회'에도 참석해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아동친화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전주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아침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도지지원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마음을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생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연속의 놀이터 '전주 아이숲', 전문가가 연중무휴로 어린이를 독립된 공간에서 치료하는 '365.24 아동치료실 운영'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향후 지속적인 아동참여기구 운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내 여러 도시들이 힘을 모은 이번 컨퍼런스와 박람회를 통해 전국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불이 형성되고,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미래의 자산인 우리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전주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아동친화TF팀을 신설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인 규정 담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또, 올해 초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제1회 컨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과 문동신 군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군산시, 아동 친화정책 알려

군산시(시장 문동신)도 지난 13일과 14일 서울 잠실호텔롯데월드와 롯데월드에서 개최된 '제1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에 참석해 군산시의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정책을 전국에 알렸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서울 송파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의 고문을 맡고 있는 문동신 군산시장은 14일 이번 박람회 현장을 찾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행복도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18년 제2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 군산 유치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전주 등 아동친화도시를 추진중인 국내 35개 도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모든 아동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일본의 아동친화도시인 카와사키시의 코도모우메가키(어린이 꿈의 공원) 총괄책임자인 니시노 히로유키 씨가 기조강연을 통해 일본의 특색 있는 아동친화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주시는 13일과 14일 2일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아레나광장에서 진행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박람회'에도 참석해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아동친화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전주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아침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도지지원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마음을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생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연속의 놀이터 '전주 아이숲', 전문가가 연중무휴로 어린이를 독립된 공간에서 치료하는 '365.24 아동치료실 운영'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향후 지속적인 아동참여기구 운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내 여러 도시들이 힘을 모은 이번 컨퍼런스와 박람회를 통해 전국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불이 형성되고,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미래의 자산인 우리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전주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6월 현장행정의 날 실시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14일 전 청원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관내 취약지역을 정비하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행정은 하절기를 맞이해 도로변,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해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도심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아파트 분양 광고물, 신규 오픈 가게 홍보물 등과 FIFA U-20월드컵 등 각종 국내외 행사 및 축제 개최 후 도시 곳곳에 남아 있는 불법광고물과 잔재를 제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백순기 완산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감과 소통의 감동 행정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 등 아동친화도시를 추진중인 국내 35개 도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모든 아동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일본의 아동친화도시인 카와사키시의 코도모우메가키(어린이 꿈의 공원) 총괄책임자인 니시노 히로유키 씨가 기조강연을 통해 일본의 특색 있는 아동친화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주시는 13일과 14일 2일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아레나광장에서 진행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박람회'에도 참석해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아동친화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전주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따뜻한 아침도시락을 배달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도지지원을 통해 지역아동들의 마음을 양식을 채우는 '지혜의 반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자연과 생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연속의 놀이터 '전주 아이숲', 전문가가 연중무휴로 어린이를 독립된 공간에서 치료하는 '365.24 아동치료실 운영'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향후 지속적인 아동참여기구 운영,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전주시, '청년 상상놀이터 네트워킹 파티' 개최

창업 활성화 등 의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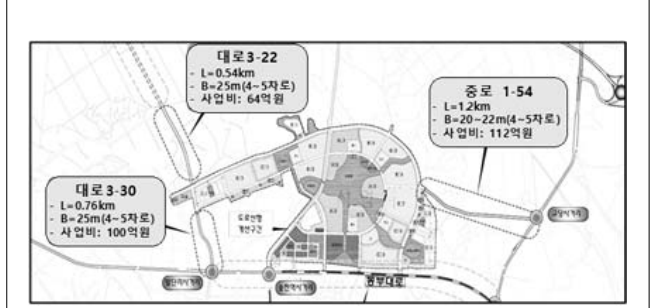
전주시가 청년창업도시 기반 조성에 나선 가운데, 지역 청년들이 창업 등 경제활동에 대한 꿈을 자유롭게 키우고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인 전주청년상상놀이터 활성화와 소통을 위한 축제를 열었다.

시는 14일 병무청오거리 공동창업지원실에서 약 20여명의 전주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주청년상상놀이터 네트워킹 파티'를 개최했다. 전주청년상상놀이터는 민선 6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전주시 대표사업

으로, 시는 비슷한 꿈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각자의 창업 아이템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청년창업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나는 관계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들의 상상놀이터 참여 확대 방안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또 취업과 창업 등 최근 청년들의 고민과 취미, 관심분야 등 공통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관계형성에 나섰다. /인재용 기자



에코시티 연계도로 노선 개설

전주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섬에 따라 호성동 등 3곳

전주시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에코시티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연계도로 3개 노선을 개설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19년까지 에코시티와 덕진구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등 3개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연계도로를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에코시티 연계도로 개설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외곽지역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주변지역과의 교통 연계성을 확보하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다.

먼저, 시는 호성동 고당네거리에서 에코시티 사업지구의 동쪽 입구인 초포초등학교에 이르는 초포로 1.2km 구간을 현재 폭 8m에서 20~22m(4차로~5차로)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통행량이 많은 동부대교와 에코시티 사업지구, 에코시티 사업지구와 전미동 미산초등학교에 이르는 전미로 구간 2개소 1.3km 구간도 현재 폭 8m에서 25m(4~5차로)로 확장 개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도시계획시

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상태로, 이달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위해 연계도로 3개 노선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9월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19년 9월까지 모든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연계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송천동 등 북부권 주민들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접근성이 용이해져 광역도시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에코시티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에코시티 연계도로 개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주 북부권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 북부권 신도시개발지구인 에코시티는 3만2,903명(1만3,161세대)이 입주 예정이며, 현재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시는 에코시티 2단계 사업의 경우 항공대교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 오는 2020년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시내버스 선진지 벤치마킹

전주시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 정책 우수사례 학습에 나섰다.

시는 14일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과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시내버스 담당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중교통 서비스 우수기관인 서울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시민모니터단과 업계관계자, 행정이 함께 지선, 간선, 마을버스 등을 직접 탑승체험 함으로써 전주시내버스 운영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특히, 전주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동 중인 전주시민모니터단은 이날 서울시 시내버스를 직접 탑승 체험 후 각자 체험담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인재용 기자

구도·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시, 수달 서식환경 개선

연말까지 섬 형태 보금자리 마련

전주시가 전주천·삼천에 서식하는 수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 수립에 착수한 데 이어, 수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시는 수달 보금자리 마련과 로드킬 방지시설, 보 개량 등을 통해 멸종위기 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환경을 점차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전주천 상류 한벽보에서 처음 확인됐던 수달이 최근 들어서는 전주천과 삼천 등 전주시 도심하천에서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달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시는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신동 삼천과 전주천 합류점 인근에 독립된 섬 형태의 수



달 보금자리와 생태수로 등을 올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달의 차량 사고(로드킬)를 방지하기 위해 가드레일이 설치된 진북교에서 서신교까지 전주천 언더패스 552m 구간에 로드킬 방지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천 및 삼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고정보가 수달과 어류 등의 이동을 차단해 하천 생태계 유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기존 수직 콘크리트 고정보를 완만한 여울형으로 점차 개량해나갈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완산구, 6월 현장행정의 날 실시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14일 전 청원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관내 취약지역을 정비하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행정은 하절기를 맞이해 도로변,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해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도심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아파트 분양 광고물, 신규 오픈 가게 홍보물 등과 FIFA U-20월드컵 등 각종 국내외 행사 및 축제 개최 후 도시 곳곳에 남아 있는 불법광고물과 잔재를 제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백순기 완산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감과 소통의 감동 행정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 등 아동친화도시를 추진중인 국내 35개 도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컨퍼런스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모든 아동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